

# 여론조사꽃 제41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5\_05

ARS+CATI

제39차 ARS조사

제24차 CATI조사

www.  
flowerresearch.  
com

# 여론조사꽃

## 제41차

### 정례여론조사

###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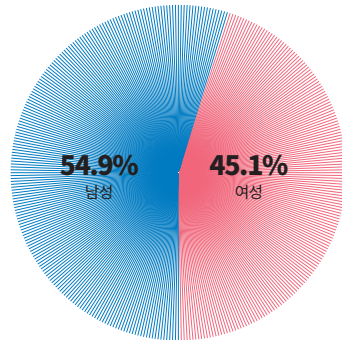
## ARS & CATI

####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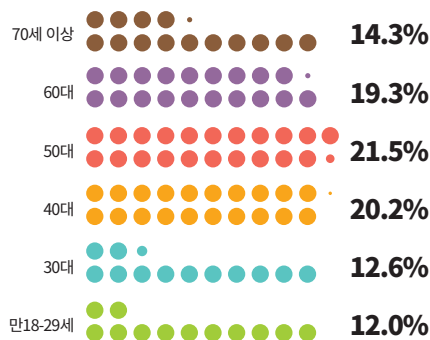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4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립가중)
응답률	2.6% [총 통화시도 39,033명]
조사기간	2023년 5월 26일 ~ 5월 27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4	100.0%	1,004	100.0%	1.00
성별		남성	551	54.9	499	49.7	0.91
		여성	453	45.1	505	50.3	1.11
연령		만18~29세	120	12.0	166	16.5	1.38
		30대	127	12.6	151	15.0	1.19
		40대	203	20.2	181	18.0	0.89
		50대	216	21.5	196	19.5	0.91
		60대	194	19.3	170	16.9	0.88
		70세 이상	144	14.3	140	13.9	0.97
지역		서울	201	20.0	188	18.7	0.94
		인천·경기	314	31.3	320	31.9	1.02
		대전·세종·충청	98	9.8	106	10.6	1.08
		광주·전라	106	10.6	97	9.7	0.92
		대구·경북	93	9.3	99	9.9	1.06
		부산·울산·경남	146	14.5	150	14.9	1.03
		강원·제주	46	4.6	44	4.4	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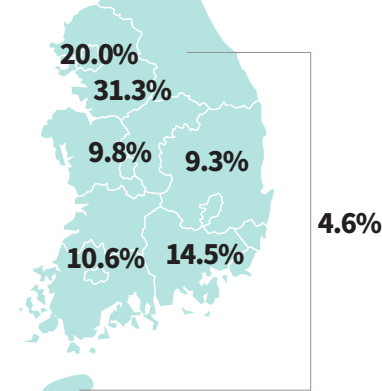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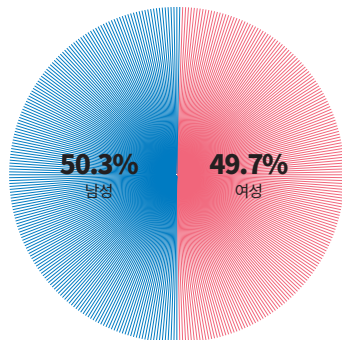


####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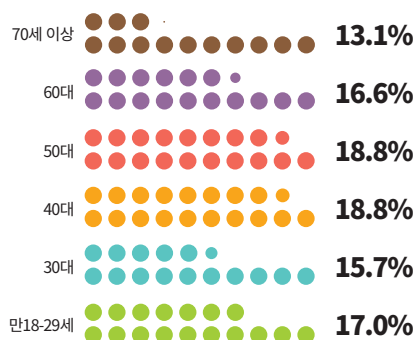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12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4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5.5% [총 통화시도 6,547명]
조사기간	2023년 5월 26일 ~ 5월 27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12	100.0%	1,012	100.0%	1.00
성별		남성	509	50.3	501	49.5	0.98
		여성	503	49.7	511	50.5	1.02
연령		만18~29세	172	17.0	167	16.5	0.97
		30대	159	15.7	151	14.9	0.95
		40대	190	18.8	184	18.2	0.97
		50대	190	18.8	197	19.5	1.04
		60대	168	16.6	172	17.0	1.02
		70세 이상	133	13.1	141	13.9	1.06
지역		서울	191	18.9	190	18.8	0.99
		인천·경기	325	32.1	322	31.8	0.99
		대전·세종·충청	112	11.1	107	10.6	0.96
		광주·전라	98	9.7	99	9.8	1.01
		대구·경북	91	9.0	99	9.8	1.09
		부산·울산·경남	152	15.0	151	14.9	0.99
		강원·제주	43	4.2	44	4.3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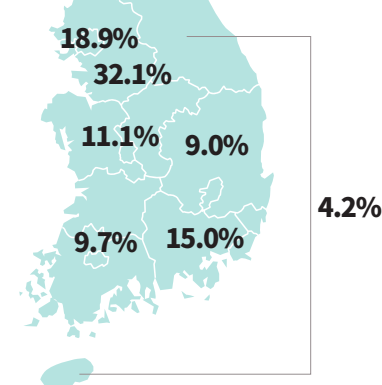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는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할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에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 여론조사꽃 제41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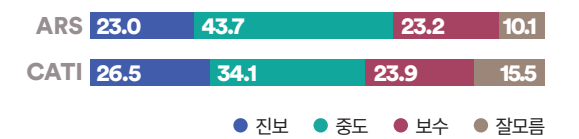
## ARS & CATI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41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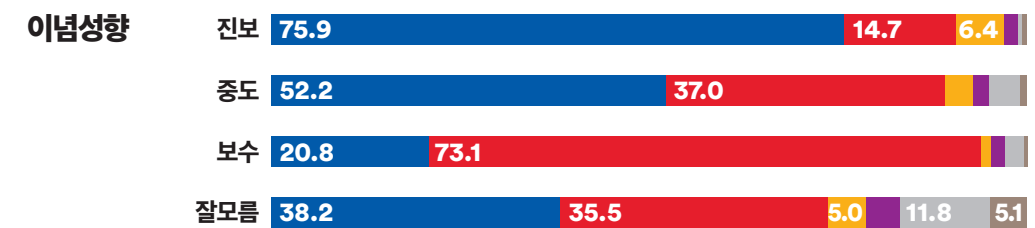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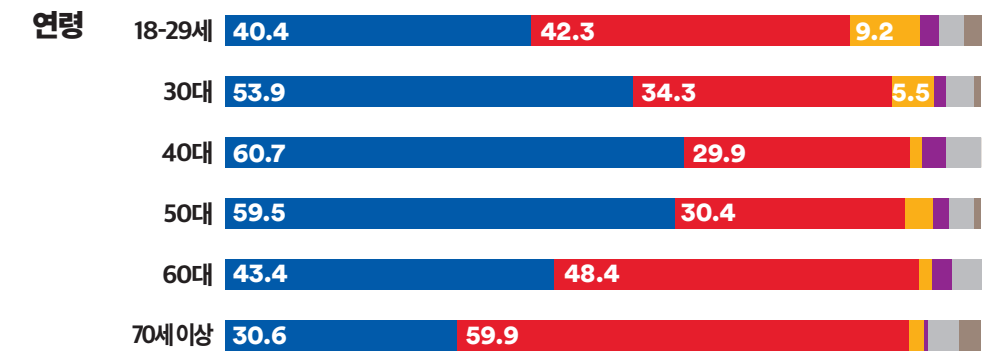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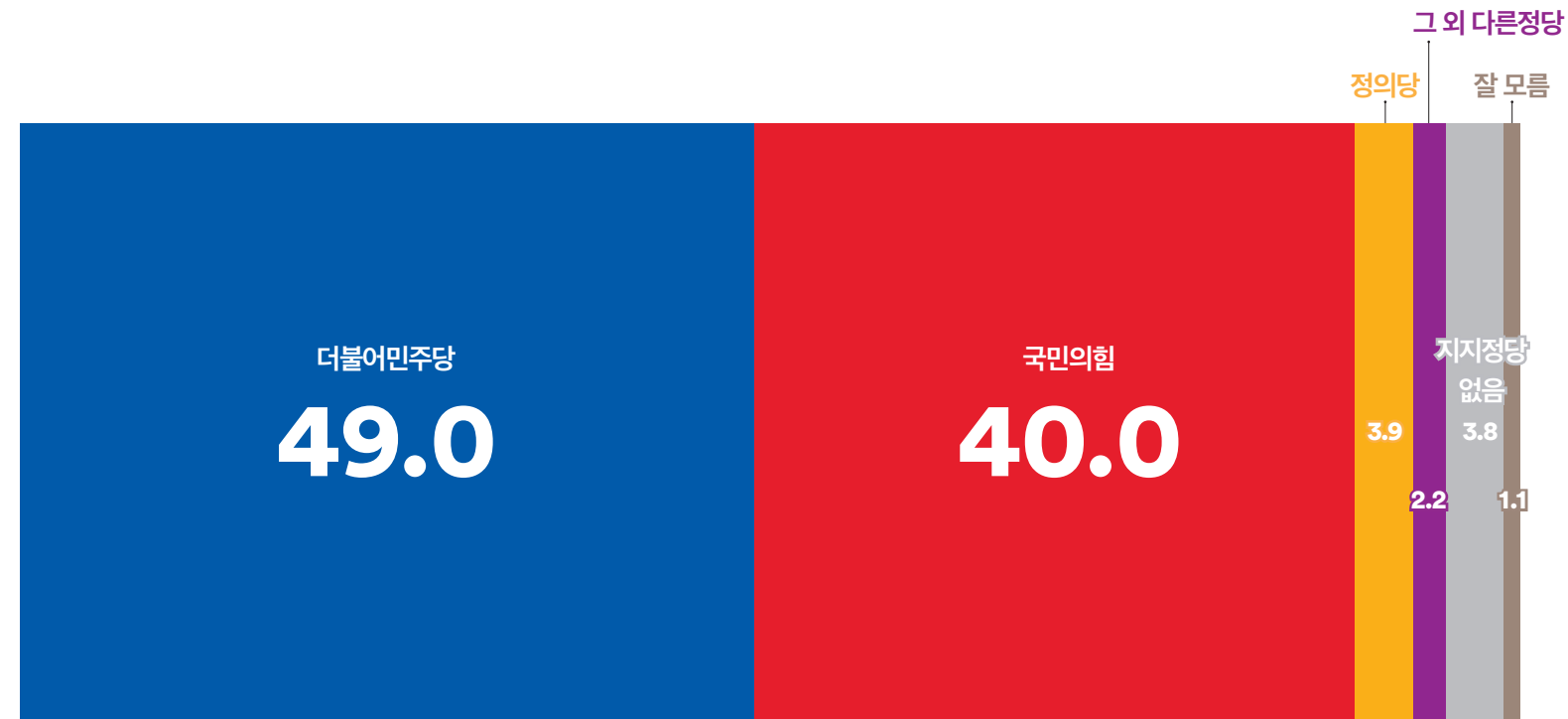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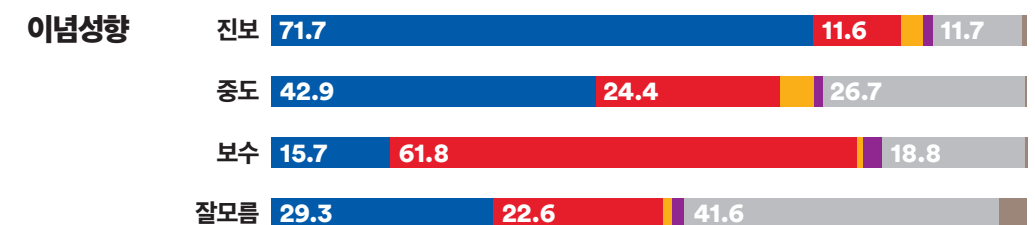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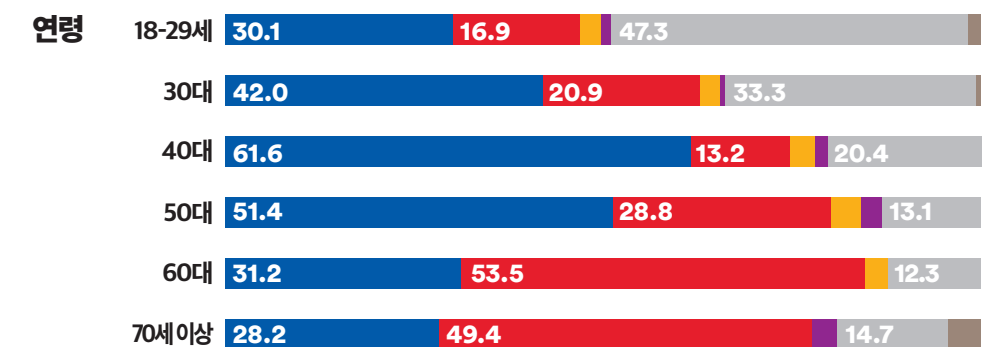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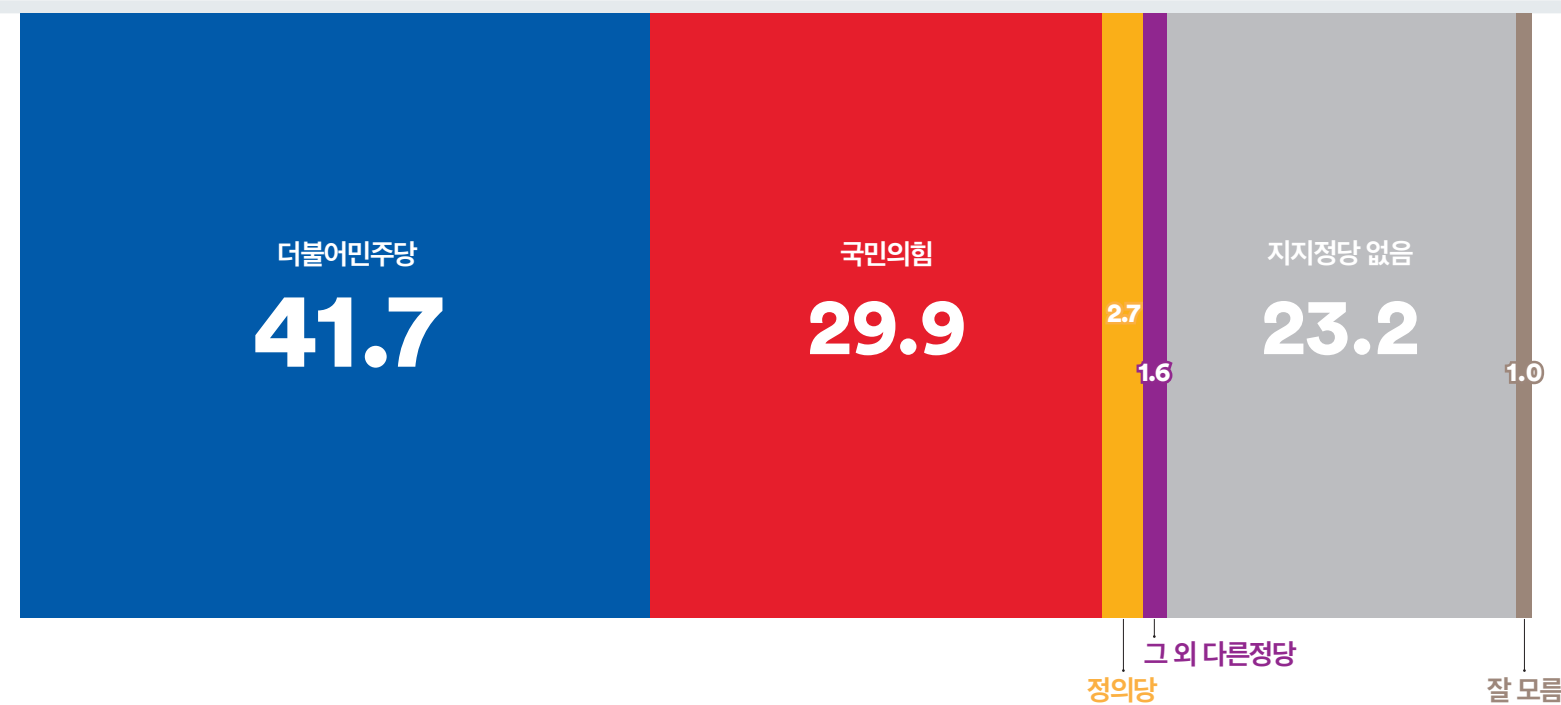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IS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5.4%p 하락, 국민의힘 3.9%p 상승 (격차 9.0%p)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4%p 하락, 국민의힘 변동없음 (격차 11.8%p)  
 30-50대, 진보·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고 70세 이상,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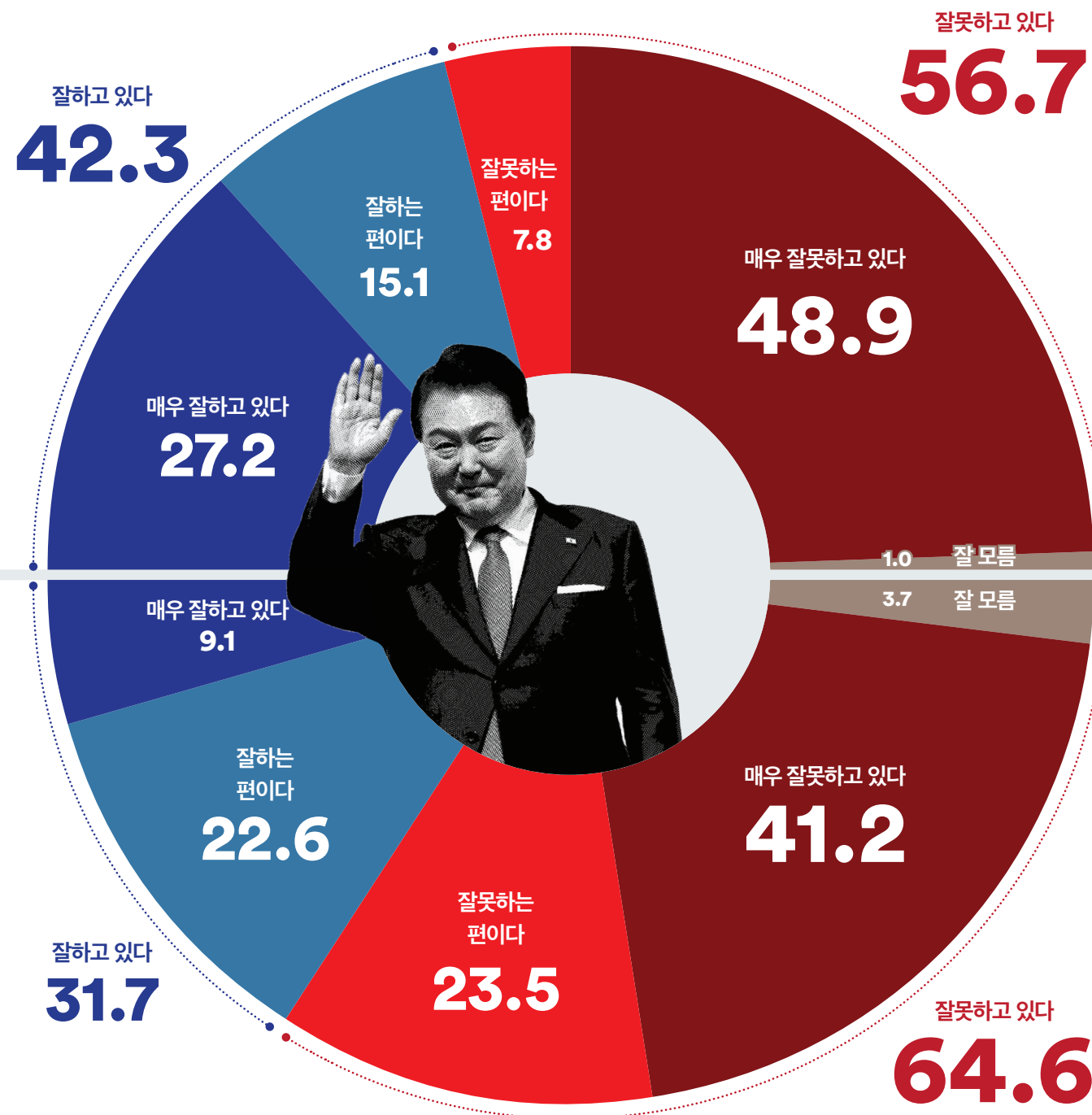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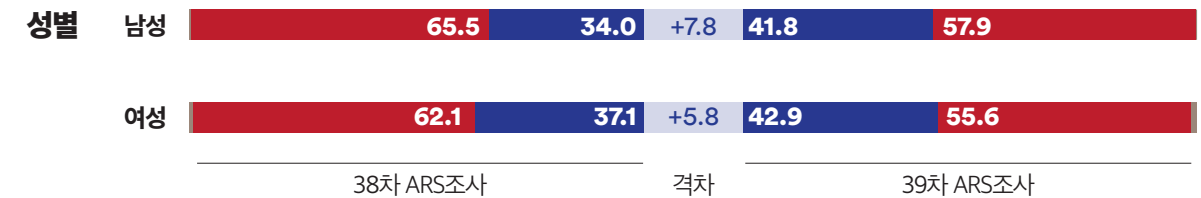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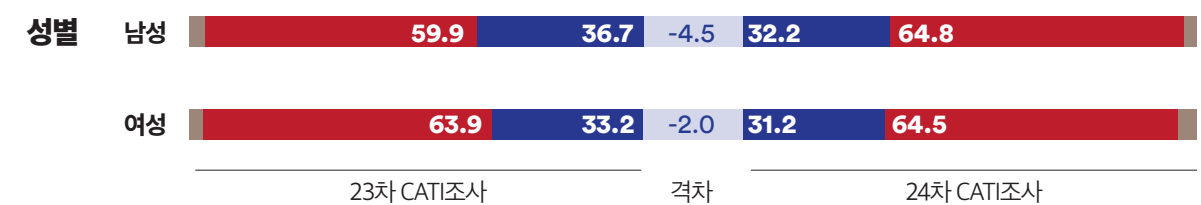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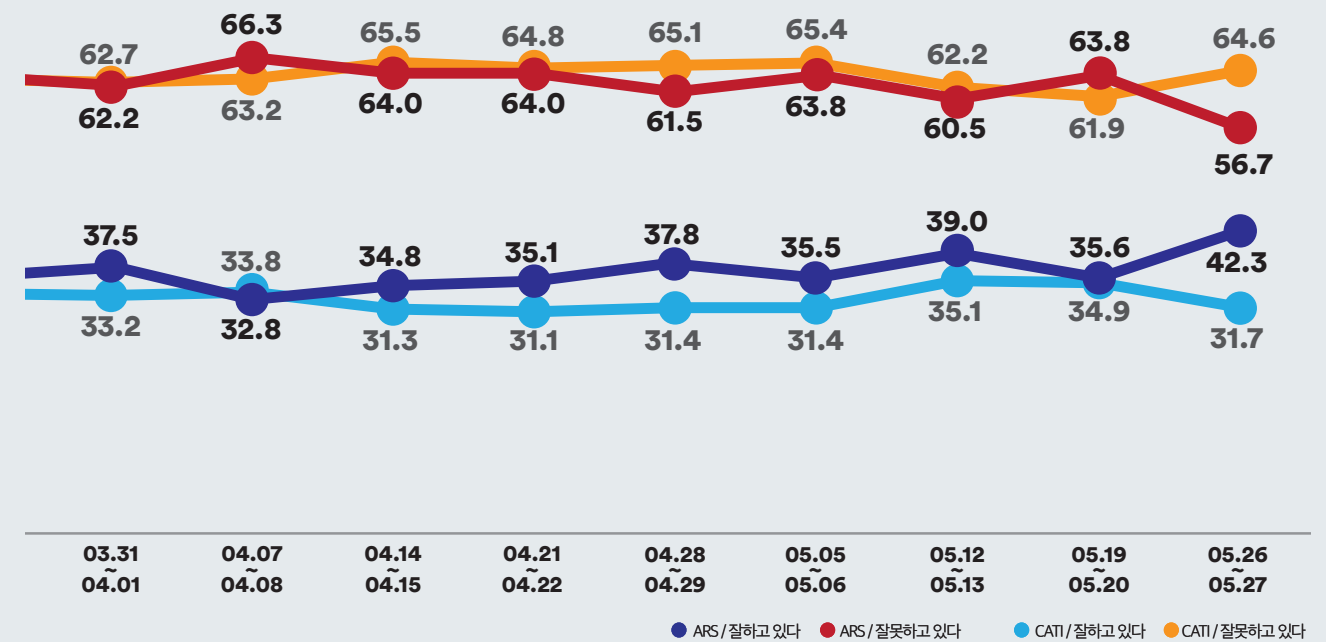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6.7%p 상승, 부정평가 7.1%p 하락 (격차 14.4%p)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3.2%p 하락, 부정평가 2.7%p 상승 (격차 32.9%p)

남·녀 모두, 50대이하 응답층, 수도권과 호남권(CATI 충청, PK포함), 진보층·중도층에서 부정평가 우세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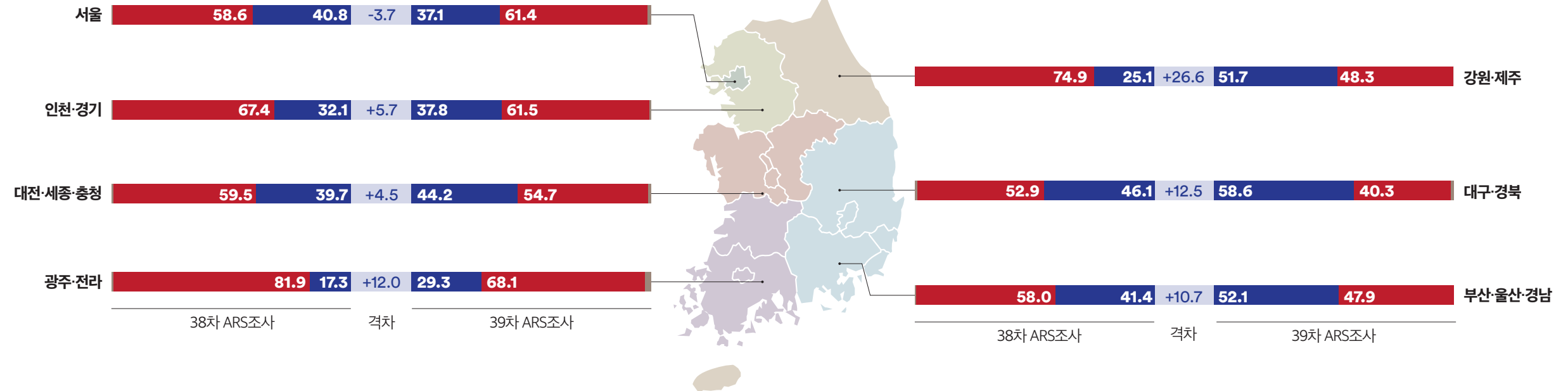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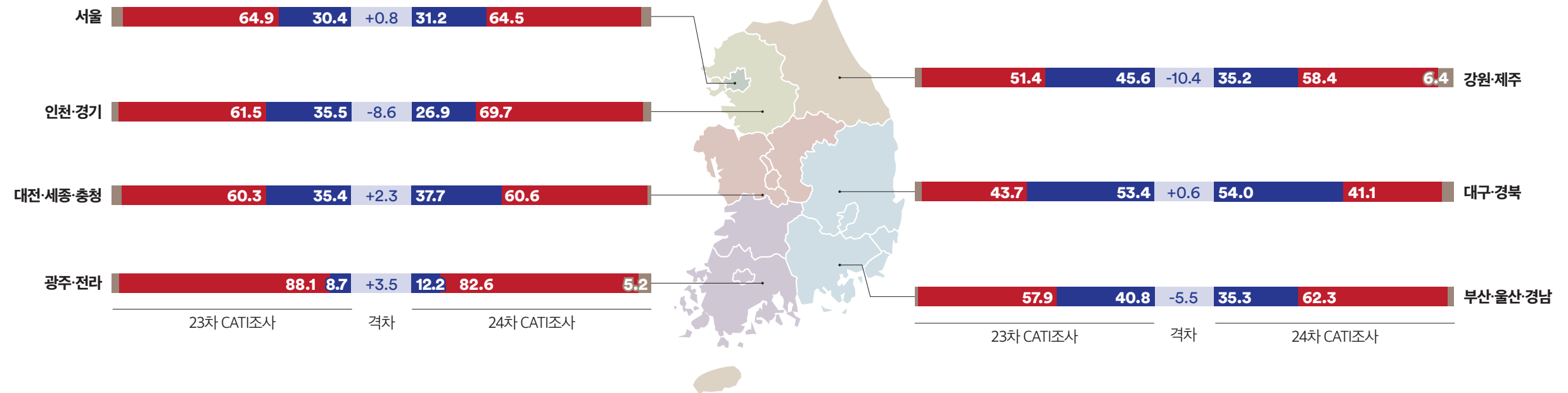
ARS

권역별



CATI

권역별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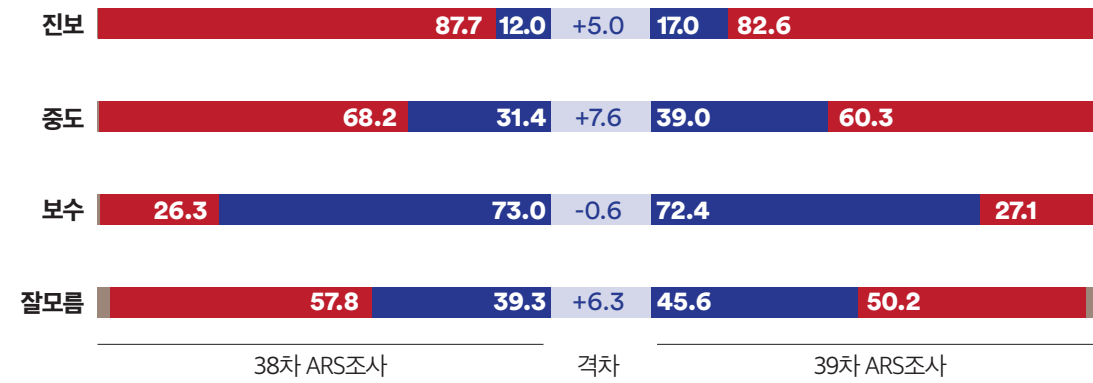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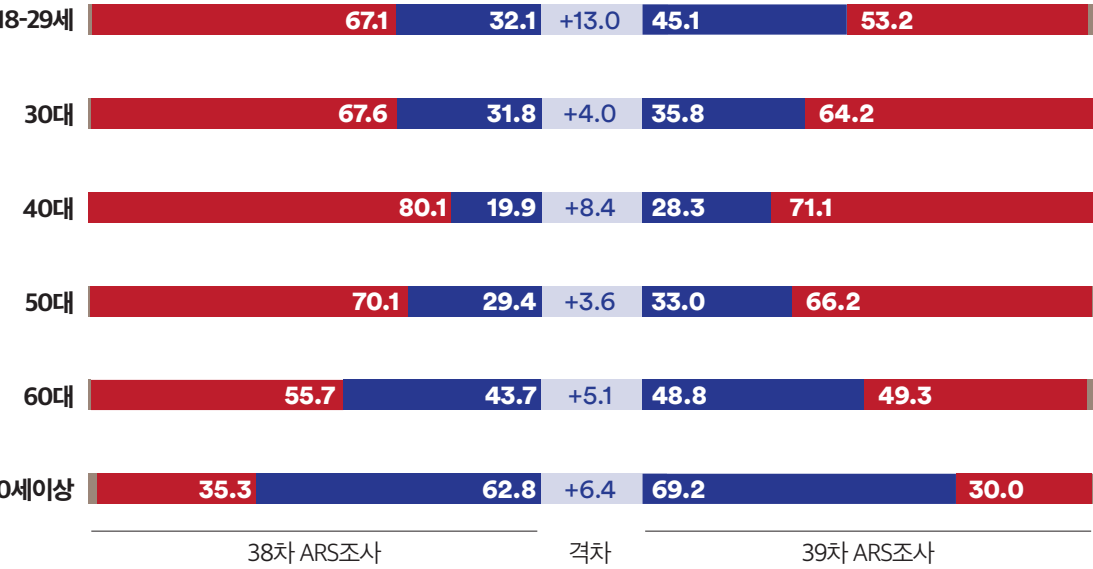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S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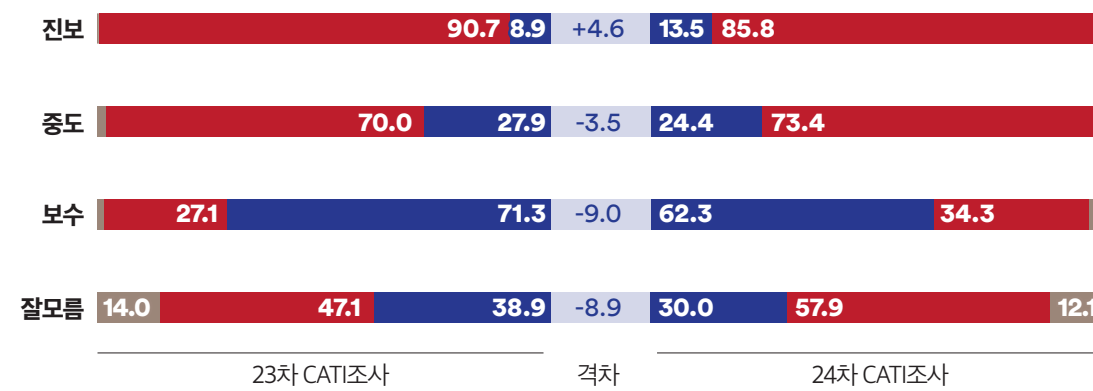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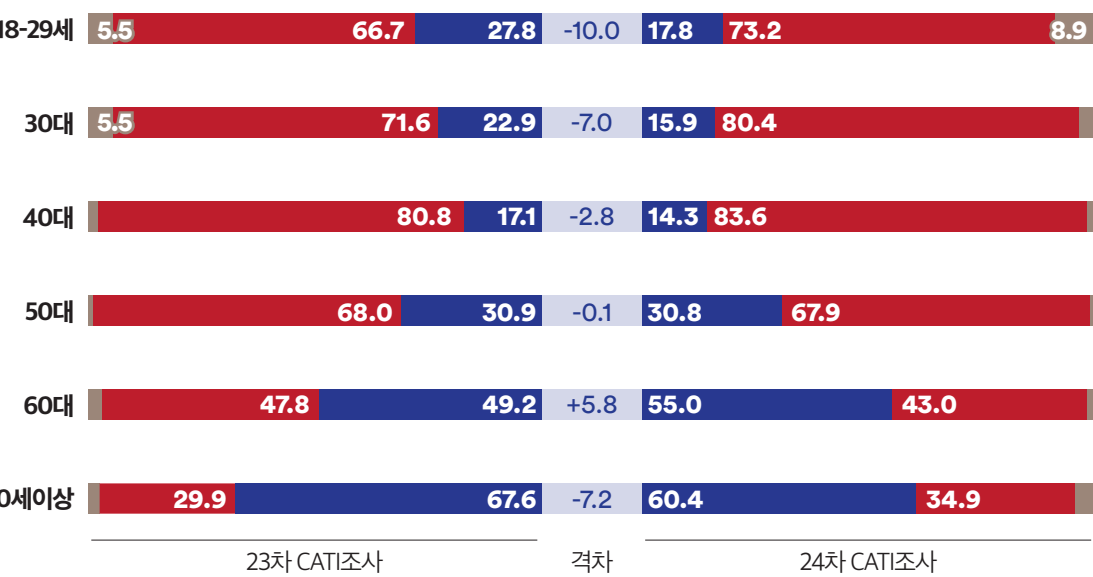


CATI

이념성향



연령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 여론조사꽃 제41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미·중 관계

## ARS & CATI / CATI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결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동의시 수산물 금지 조치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소비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 재개와 섭취 여부

중국과 미국: 반도체 판매 금지 요청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해 원전 주요 시설물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와 고장이력등에 대한 별도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시찰단은 필요한 현장 점검과 자료 요청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말했지만, 한편에서는 '면죄부 시찰'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23일, 미 의회와 정부가 '중국의 마이크론 구입 중단'에 대한 조치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수출 금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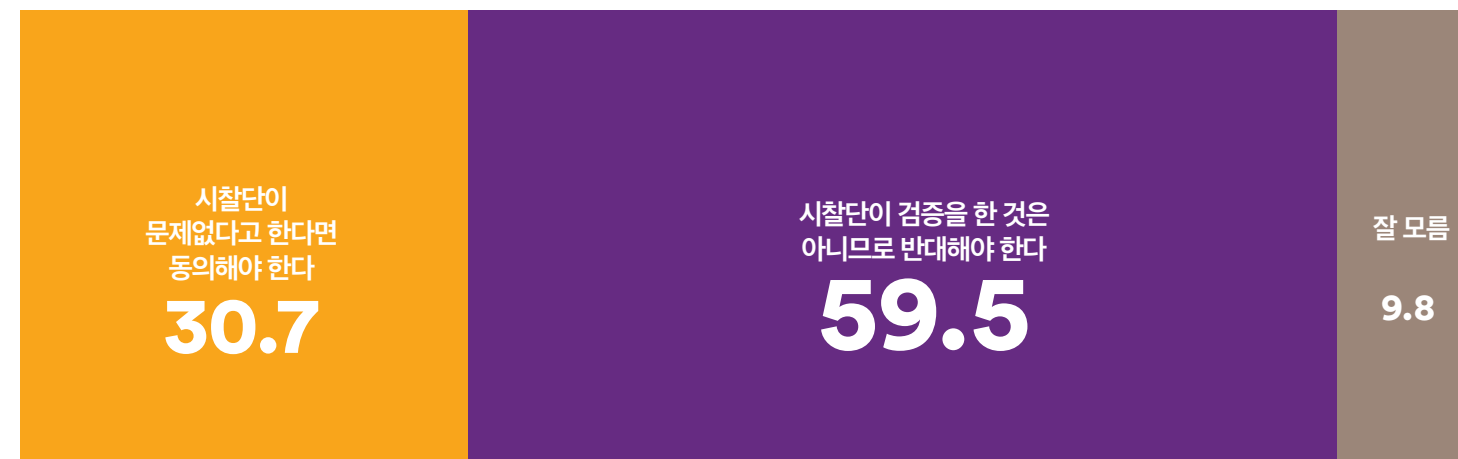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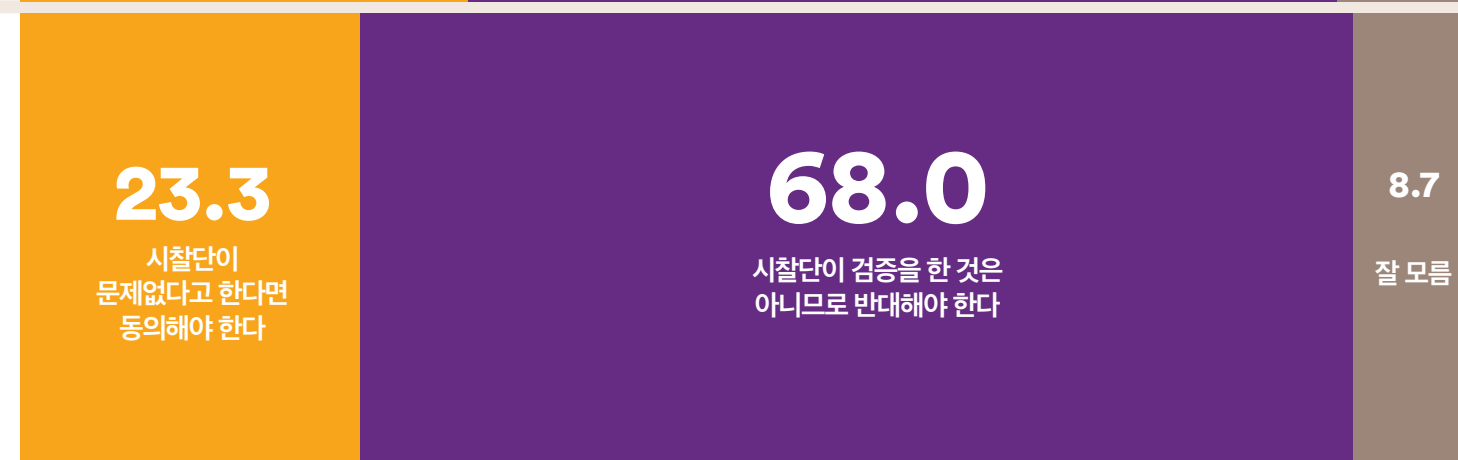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결론

Q. 시찰단이 오염수 문제없다는 결론을 낼 경우,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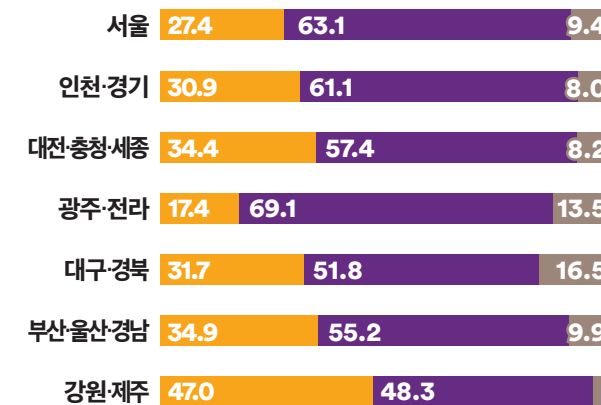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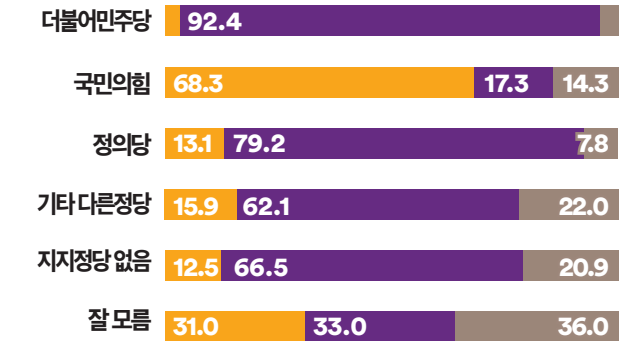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시찰단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이란 응답이 우세했으며, 응답 간 격차는 CATI 조사가 더 큼  
 두 조사 모두 60대 이하에서는 '방류에 반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며(50대 이하에서는 우세),  
 70세 이상의 경우, ARS '방류에 동의해야 한다', CATI '방류에 반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섬  
 '방류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층(ARS 68.3% / CATI 55.2%)과 보수층(ARS 53.5% / CATI 47.4%)에서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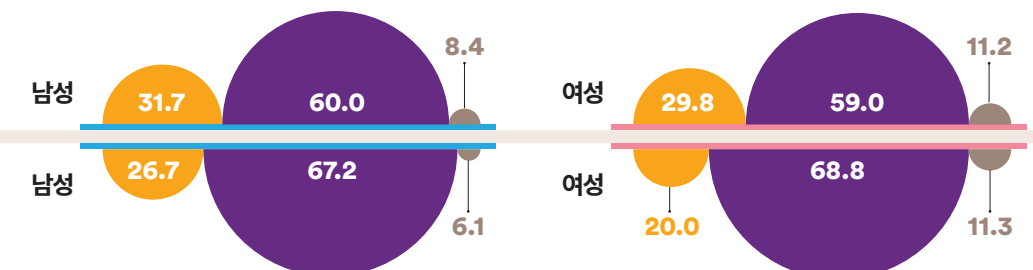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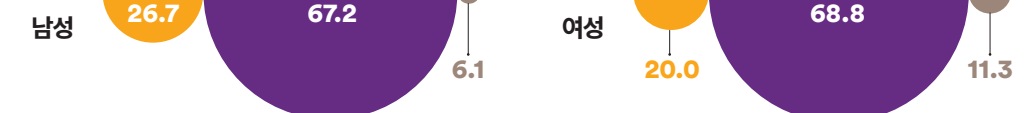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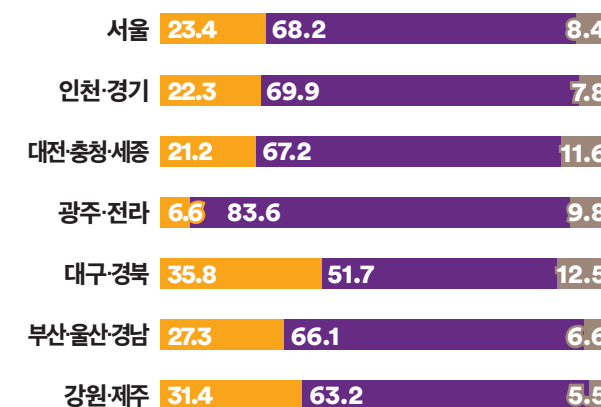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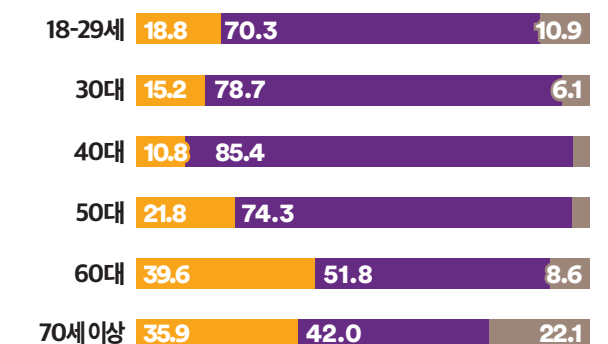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동의해야 한다 반대해야 한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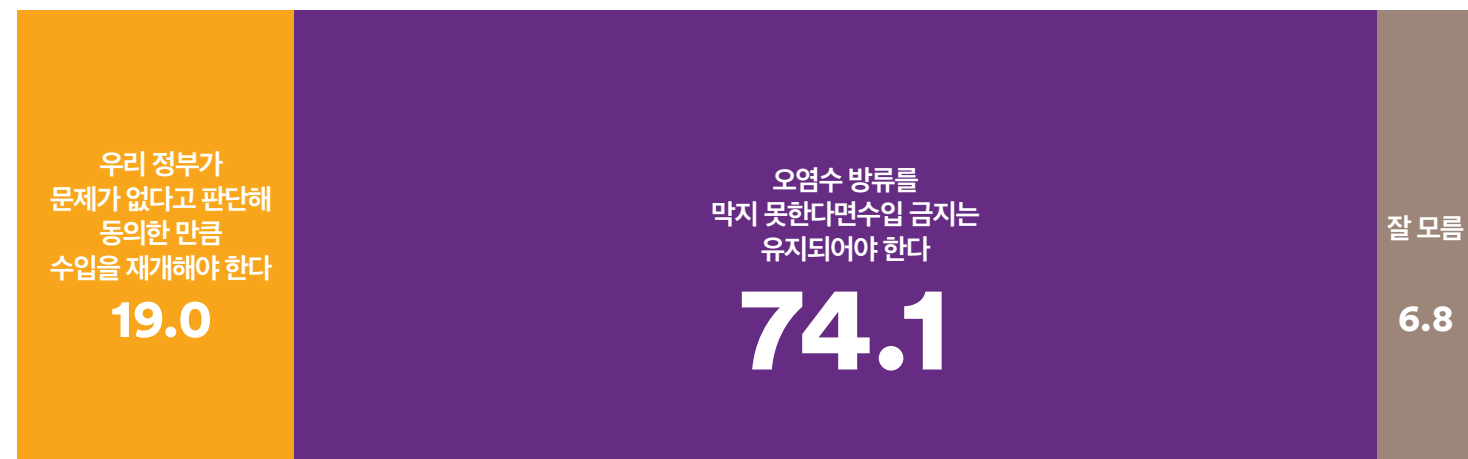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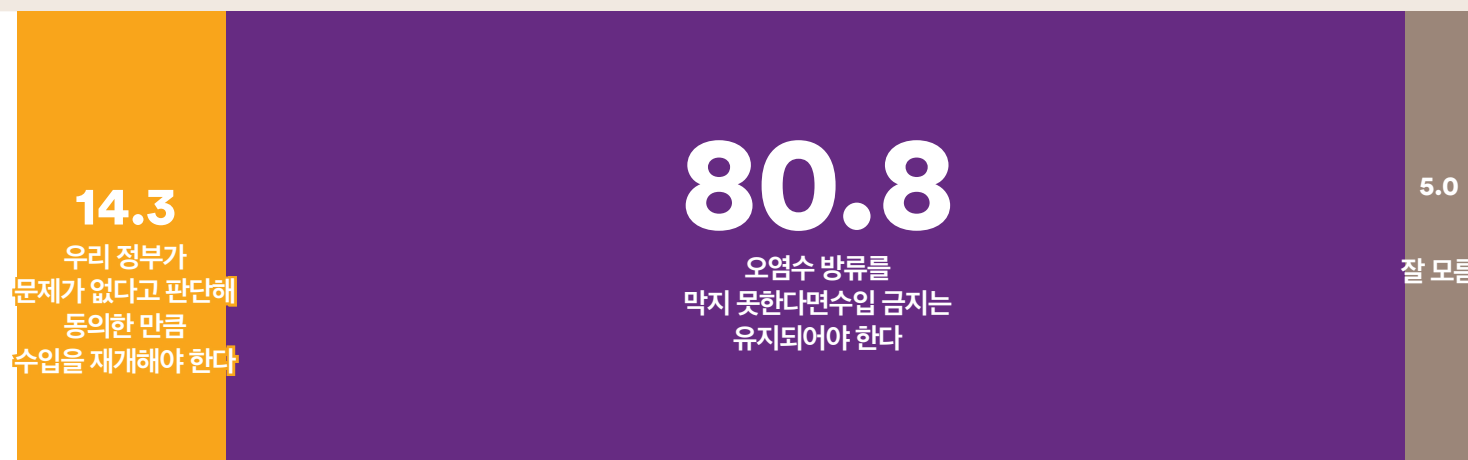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동의시 수산물 금지 조치

Q.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할 경우,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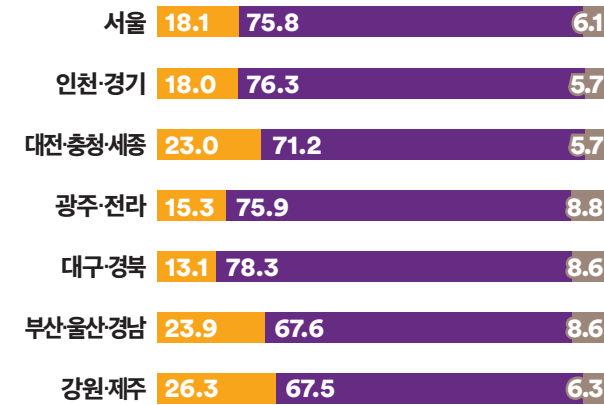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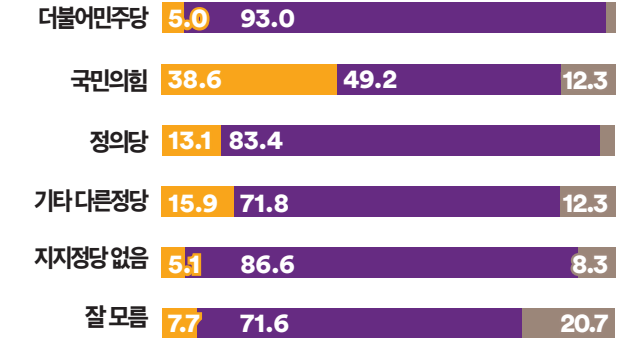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수입 금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수입 금지 유지' 응답이 우세,  
 '연령대 by 성별' 변수에서도 70세 이상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 모두 '수입 금지 유지' 응답 우세  
 '수입 금지 유지'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ARS 49.2% / CATI 54.3%)과 보수층(ARS 57.4% / CATI 64.3%)에서도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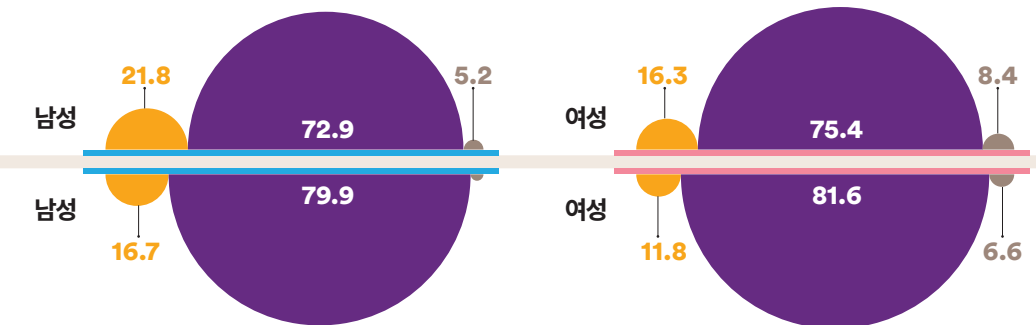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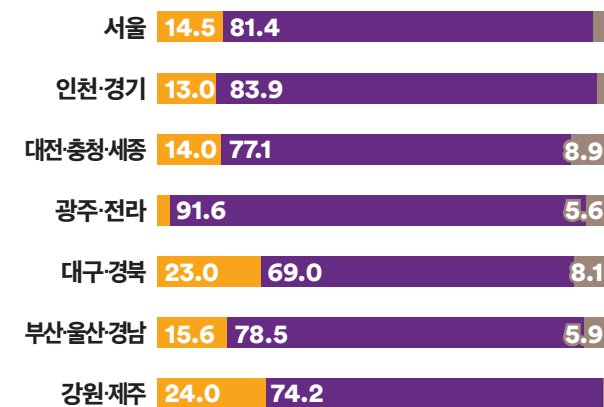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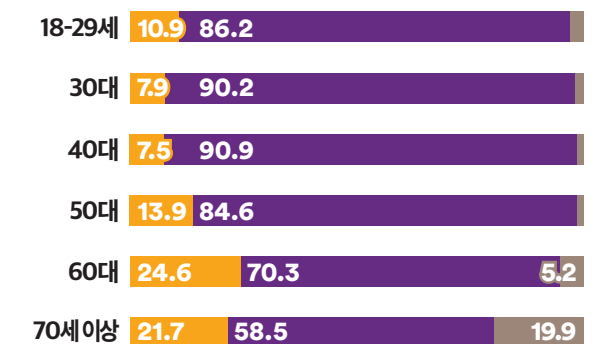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 금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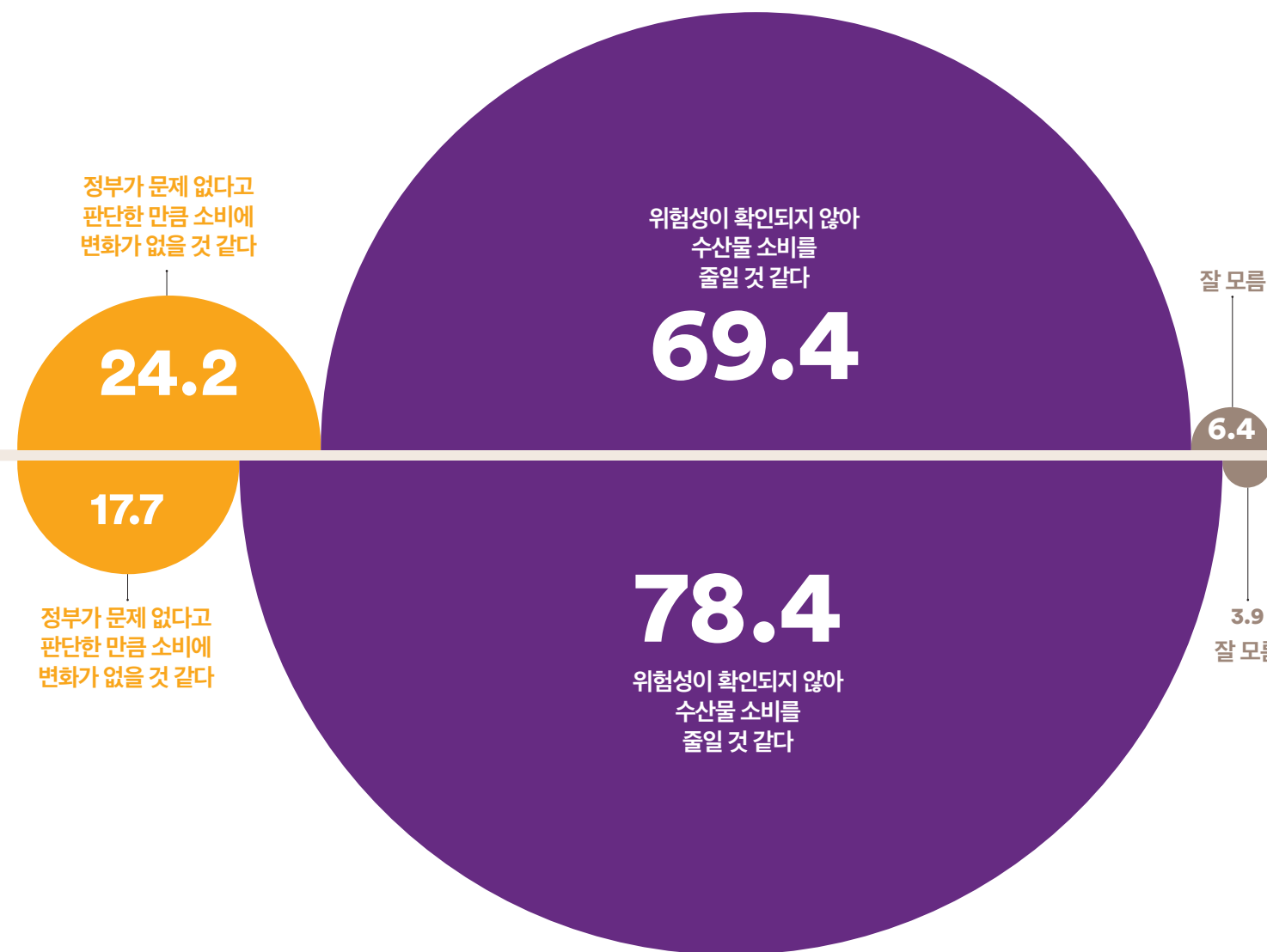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소비

Q.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할 경우, 귀댁의 수산물 소비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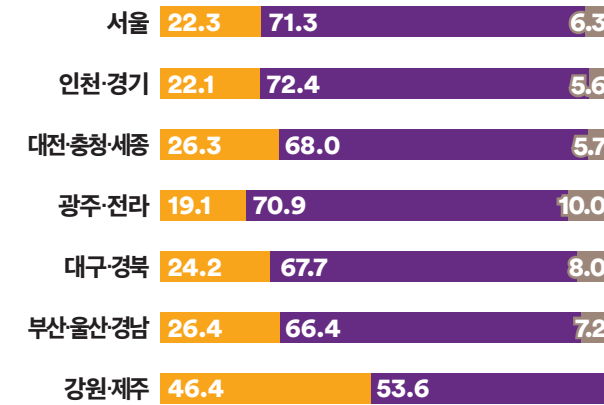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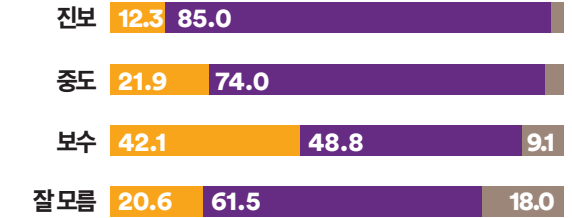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란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소비 줄일 것' 응답이 우세,  
 '연령대 by 성별' 변수에서도 70세 이상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 모두 '소비 줄일 것'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만 ARS(변화없을것 52.7%/줄일것 37.9%)와 CATI(변화없을것 43.9%/줄일것 52.4%)의 응답이 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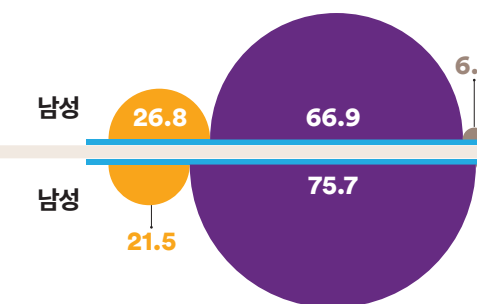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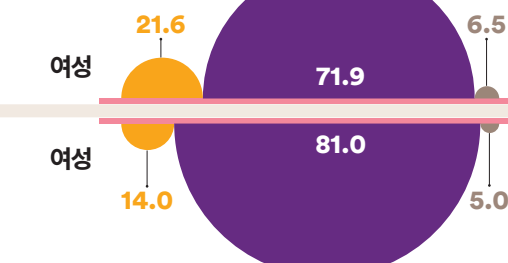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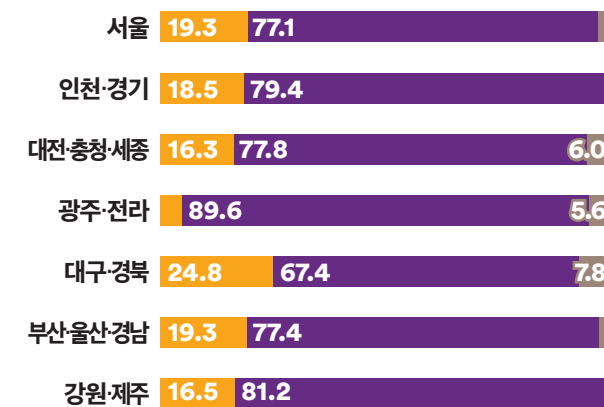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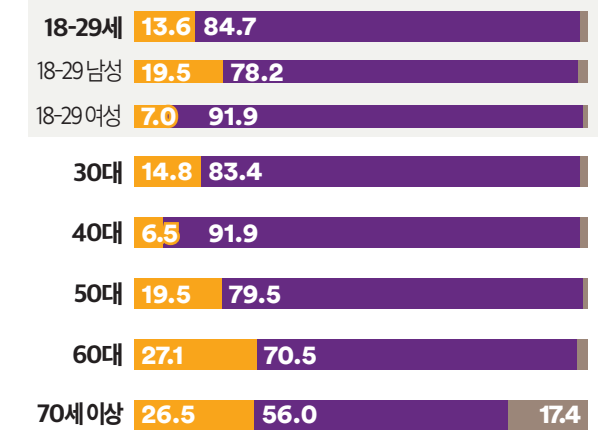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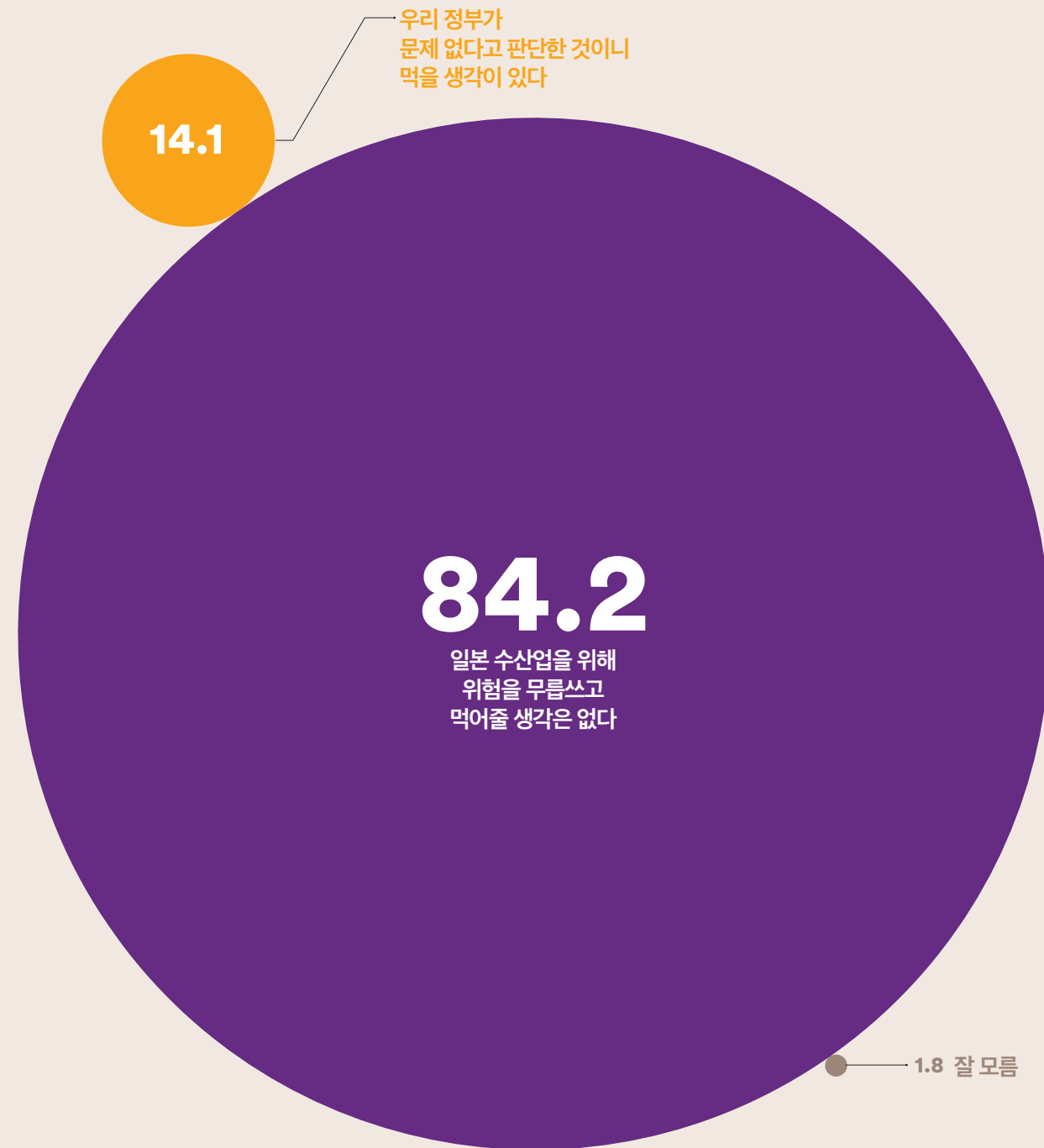
■ 소비에 변화가 없을것이다
 ■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 같다
 ■ 모르겠다



##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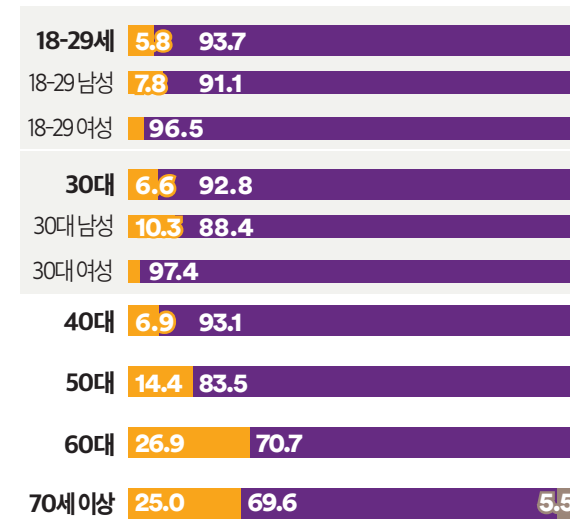
###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 재개와 섭취 여부

Q. 오염수 방류 이후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드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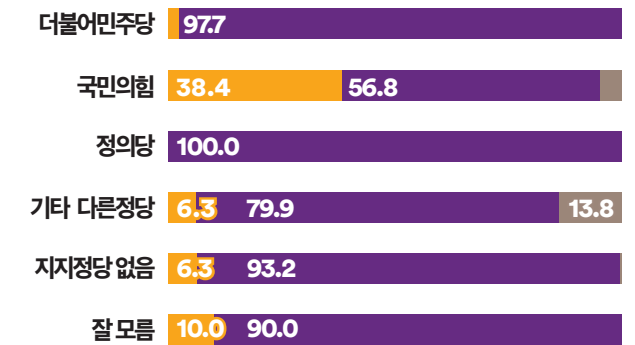


10명 중 8명 이상은 '먹어줄 생각은 없다'고 응답, '먹을 생각이 있다' 대비 압도적 우세  
세부지표를 포함한 모든 성·연령대·권역에서 '먹어줄 생각은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  
중도층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88.6%, 무당층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93.2%가 '먹어줄 생각은 없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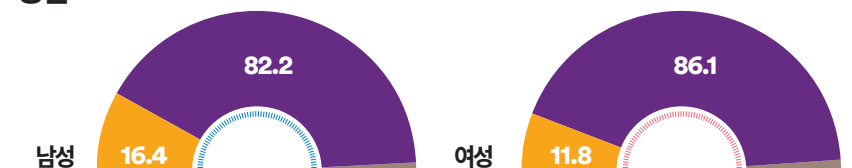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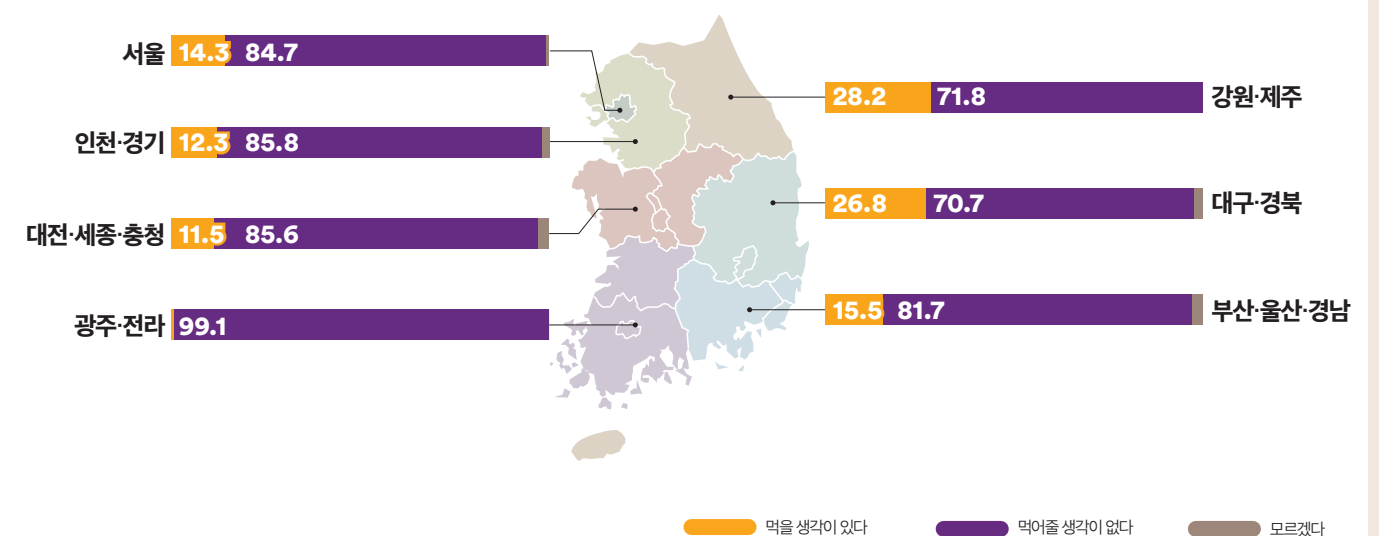
#### 정당지지도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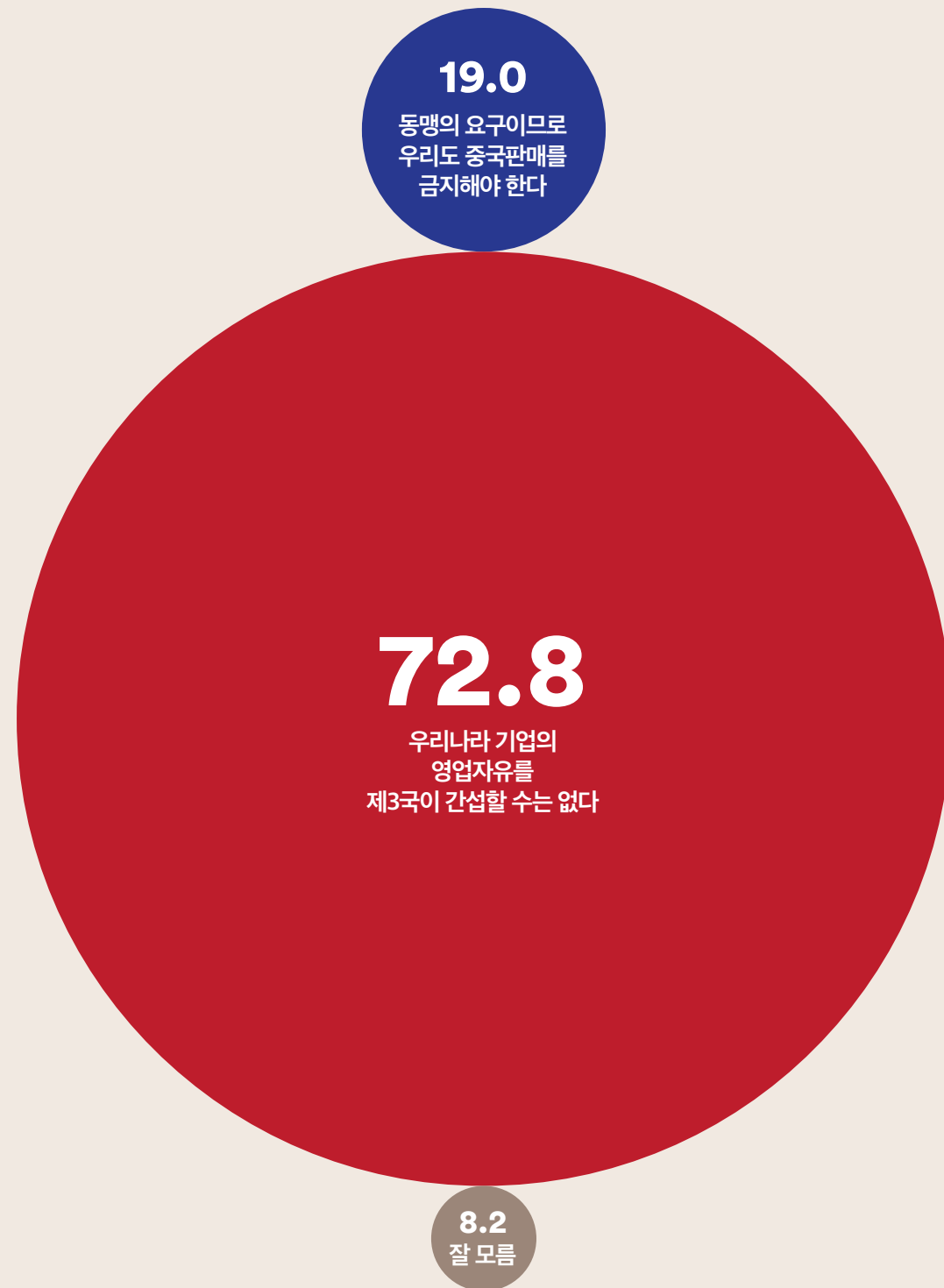
#### 권역



##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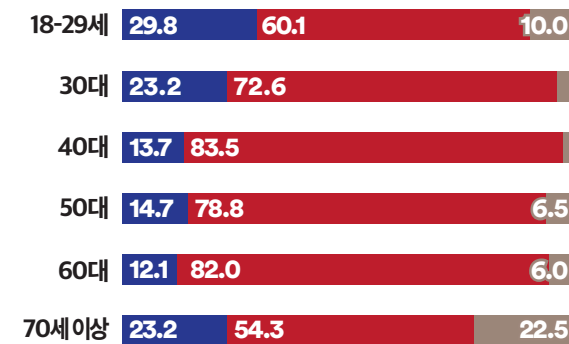
### 중국과 미국: 반도체 판매 금지 요구

Q. 중국이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의 판매를 금지하자, 한국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라는 미국 요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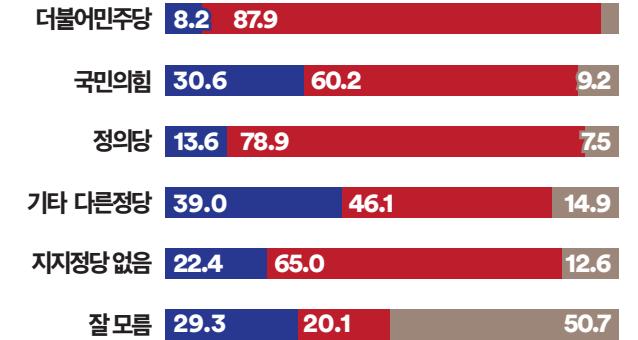


10명 중 7명 이상은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3국이 간섭할 수는 없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를 보임  
TK(67.0%), 국민의힘 지지층(60.2%), 보수층(66.4%)의 절반 이상이 '간섭할 수 없다'고 응답  
중도층은 79.5%(전체평균 이상), 무당층은 65.0%(전체 평균 이하)가 '간섭할 수 없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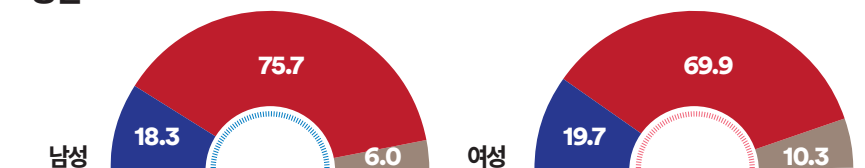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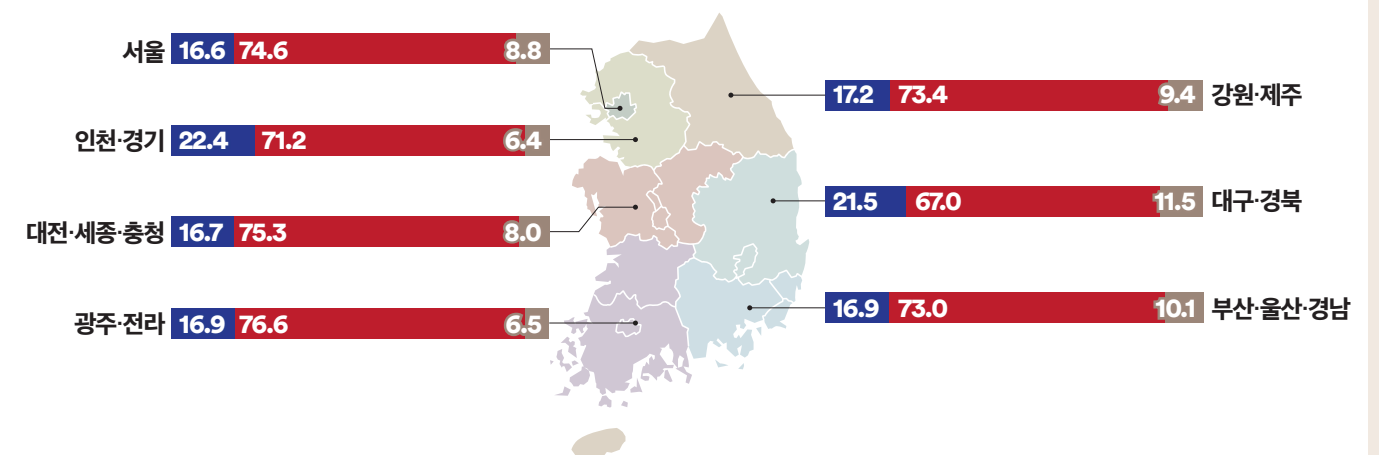
#### 정당지지도



#### 성별



#### 권역



동맹 요구대로 중국 판매 금지한다 제3국이 간섭할 수 없다 모르겠다



# 여론조사꽃 제41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노란봉투법, 야간집회금지, 다국적 군사훈련

## ARS & CATI / CATI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야간 집회금지 추진 찬반

육일기를 단 자위대 함정의 입항

지난 25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직회부 요구 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4월 양곡관리법, 5월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것이 권한 남용인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9년과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의견과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Q. 노란봉투법 국회통과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도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 2023.4.4 국무회의 / 양곡법 거부권 행사 발언 ]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2023.5.16 국무회의 / 간호법 거부권 행사 발언 ]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행사해야 한다

40.2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행사해야 한다

34.1

대통령 권한의 남용으로  
행사하면 안된다

51.7

대통령 권한의 남용으로  
행사하면 안된다

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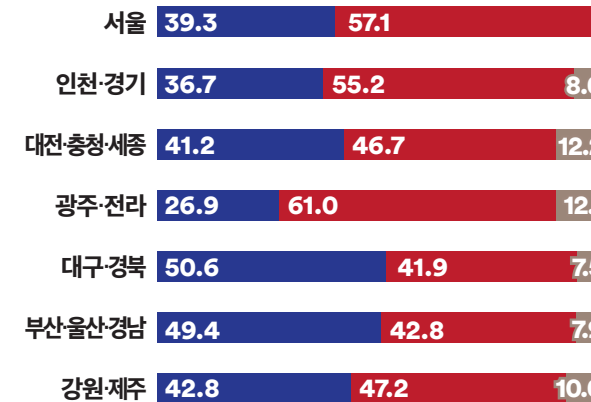
잘 모름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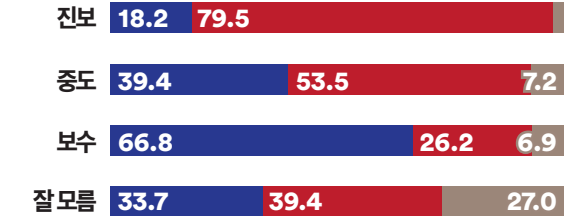
10.3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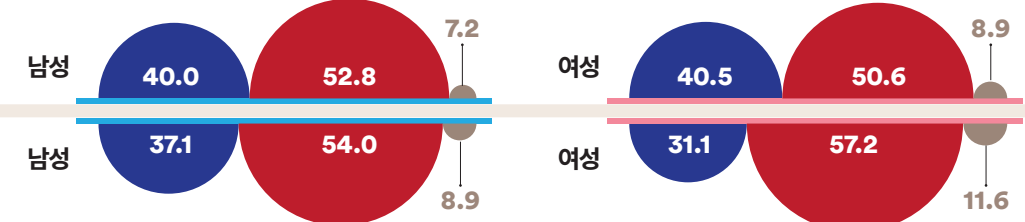
권역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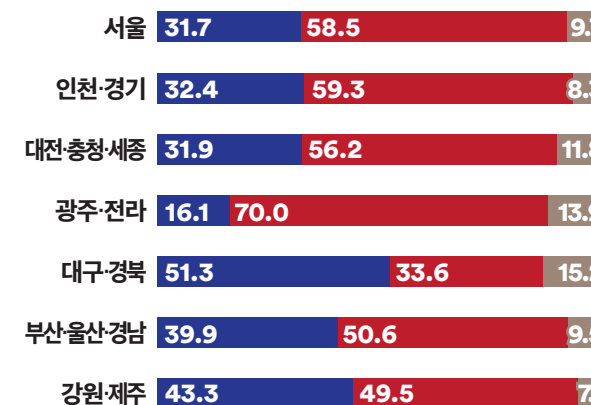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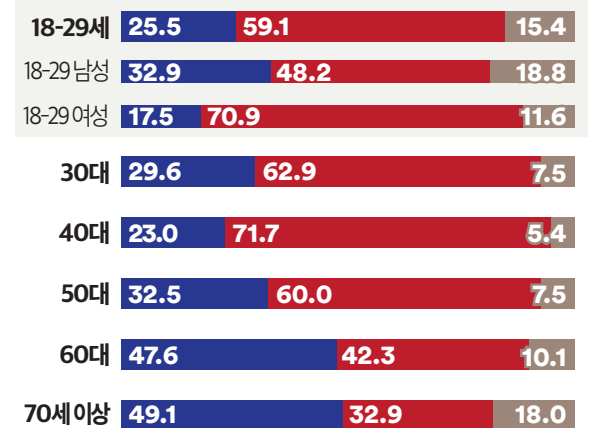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두 조사 모두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우세  
수도권과 호남(CATI 충청권 포함)에서는 ‘권한 남용, 행사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 TK에서는 ‘권한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 앞섬  
노동관련 법안에 대한 문제로, 경제활동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간의 응답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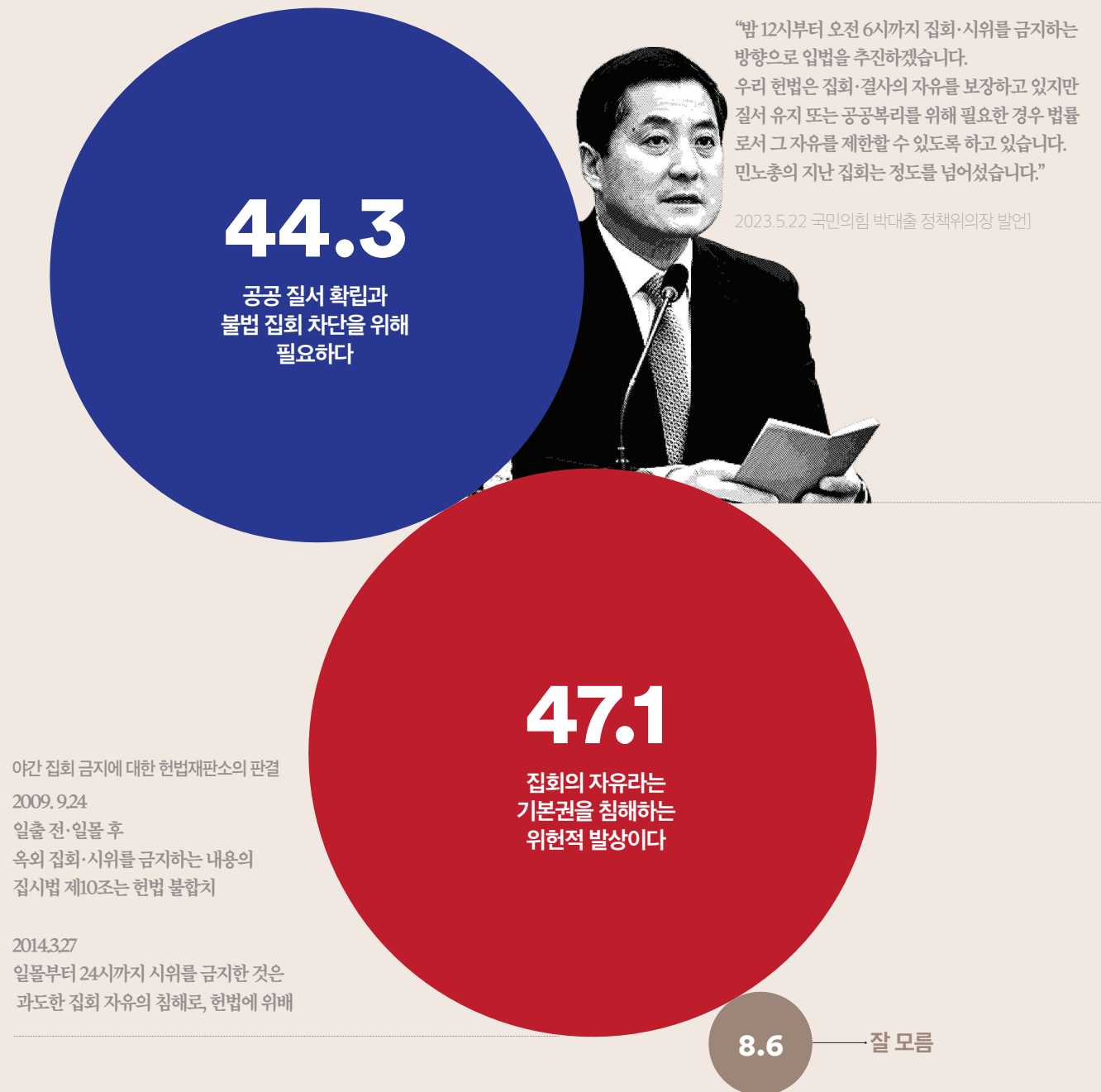
행사해야 한다    행사하면 안된다    모르겠다



##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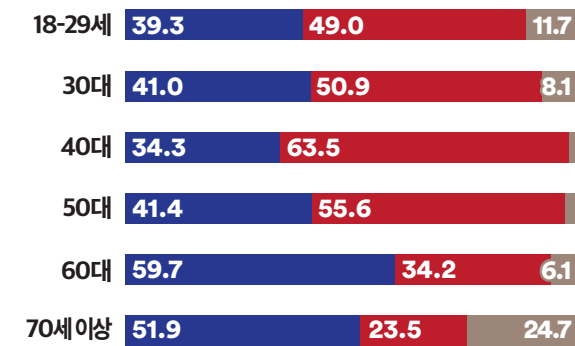
### 야간 집회금지 추진 찬반

Q.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2009년과 2014년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 여당의 야간 집회금지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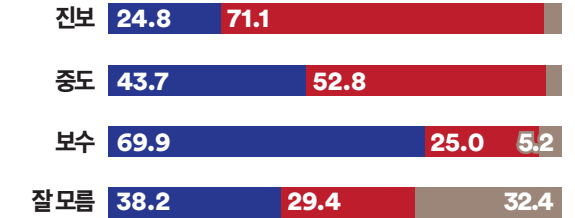


‘정부 여당의 야간집회금지 추진’에 대한 의견은 양쪽이 팽팽하게 갈림  
수도권, 충청, 호남권에서는 ‘위헌적’이라는 의견이 앞서고, TK,PK,강원·제주에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 앞섬  
50대 이하는 ‘위헌적 발상’이란 응답이 앞서고(40대 우세), 60세 이상에서는 ‘필요한 조치’란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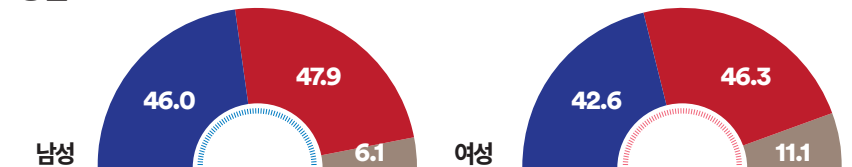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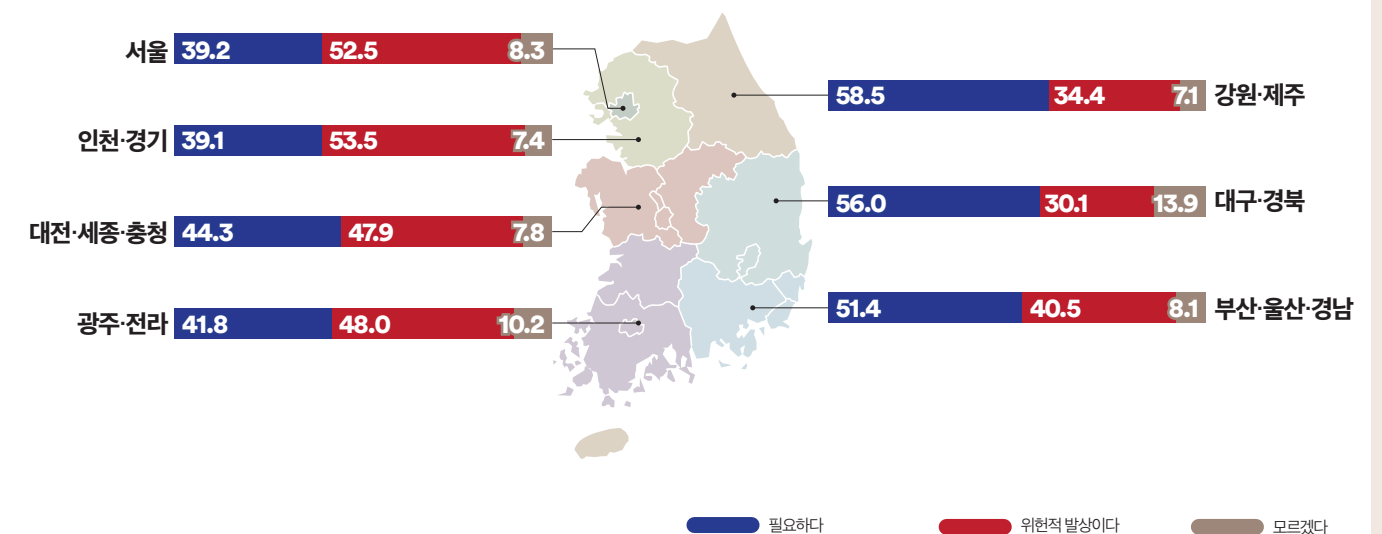
#### 이념성향



#### 성별



#### 권역





## 정치·사회 현안

### 육일기를 단 자위대 함정의 입항

Q. 이번 달 말 군사훈련 참가를 위해 일본 자위대 함정이 육일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문제삼지 않는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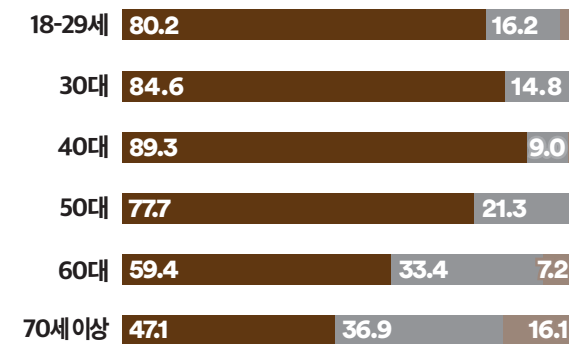
**21.5**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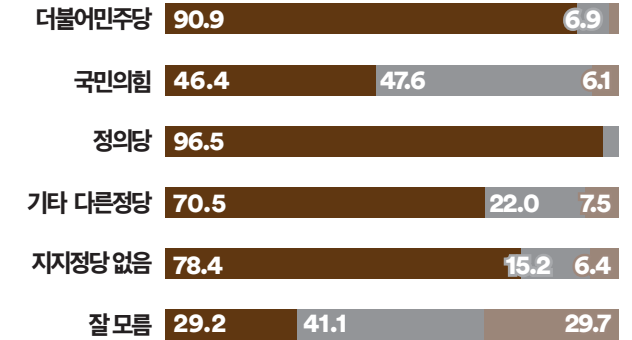
잘 모름

10명 중 7명 이상은 '육일기를 게양하고 입항해서는 안된다'고 응답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육일기 게양 입항은 불가'라는 응답이 우세  
TK(58.2%)와 보수층(56.7%)에서도 절반이상은 '육일기 게양 입항은 불가', 국민의힘 지지층은 의견이 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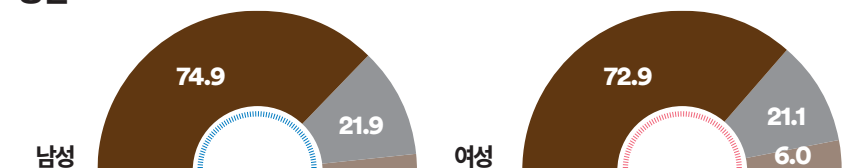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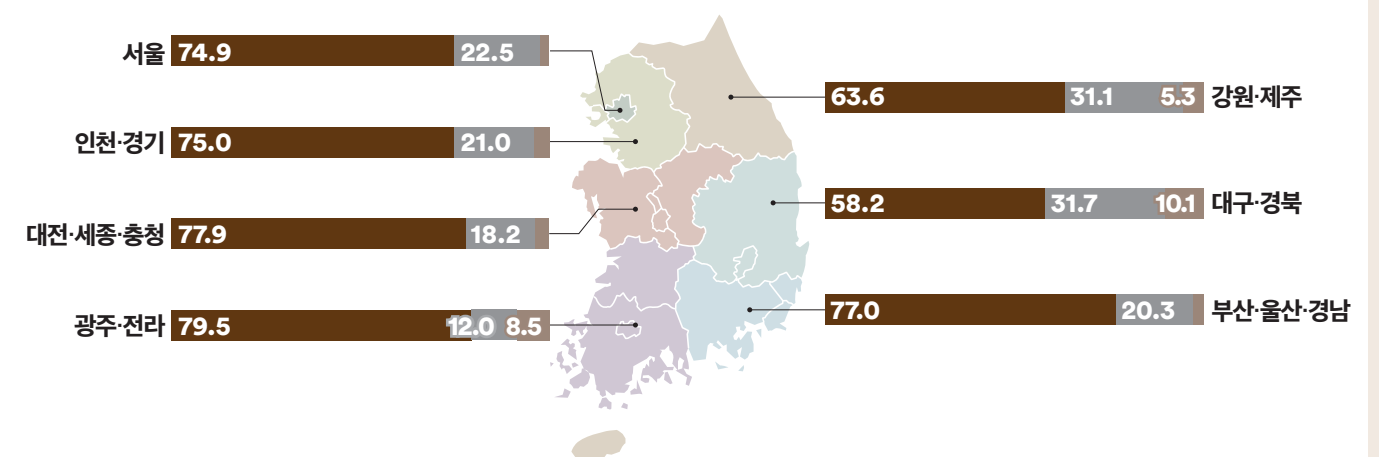
#### 정당지지도



#### 성별



#### 권역



입항해서는 안된다 문제삼지 않는것이 좋다 잘 모름



# 여론조사꽃 제41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 